

다문화 재현과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제주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의철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정용복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2015년 1월 기준 제주의 외국인 수는 19,903명으로 외국인 증가율 전국 1위이다. 이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섬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 이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의 이주가 늘어난 배경이 된다. 한편, '타자로서의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다문화 연구조차도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표면적 분석에 치중하는 지배집단 관점의 연구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과의 접촉이 없는 엘리트적 연구 관행이나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론적 비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 주목하는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반응과 그들의 미디어 이용, 사회관계, 정체성에 대해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해석했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취업이나 생활정보, 한국어 등에 대한 정보욕구가 강했다. 이들은 한국사람의 흥미를 위한 각본에 따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이주민이 불쌍하고 무능력하다는 고정관념이 전파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으로 정보와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관계를 맺고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출신국의 영화 등 문화나 뉴스도 꾸준히 접했고 한국에서의 '타자화' 경험과 결합해 고유한 '문화 간' 정체성을 구성, 협상했다. 또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이주민이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에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라는 '호명'이 부적절하며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민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역량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호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주의 방언과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언어교육과 문화와 소통 프로그램의 편성도 제안했다.

핵심어: 다문화 재현, 커뮤니케이션 권리, 소수자, 문화 간 정체성

* clerk88@sangji.ac.kr, 교신저자

** cyk1997@hanmail.net, 공동저자

1. 문제 제기와 연구 배경

2015년 1월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수는 19,903명(도내 인구의 3.3%)이며 전년보다 4,335명(27.8%) 증가했다(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2015). 제주의 외국인 증가율은 전국 최고(전국 평균 외국인 증가율 11.0%)인데¹⁾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섬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고 이에 따라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주에는 결혼이주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전년 대비 8.2% 증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현상은 제주의 지리적, 제도적 특성과 농어촌 지역의 결혼, 출산, 노동력 부족 문제가 결합된 결과이자 ‘이주의 지역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의 여성화’의 결과이기도 한데(정진주, 2010) 국가 간 노동이동의 50% 이상이 여성이며 도농 간 격차와 저출산, 농어촌의 결혼난이 겹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장임숙, 2011).

결혼이주여성은 출산과 육아, 가사를 전담하고 직장에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가운데 직장가정에서 이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기도 한다. 상업화된 국제결혼은 인간의 몸, 정서, 감정, 인격까지 구매-판매의 관계로 위치시키고 외국여성의 몸과 인격을 통제할 수 있는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김현미, 2010).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정주하며 배우자, 엄마, 며느리로서 한국인과 전면적 관계를 맺으면서 ‘단일순수 혈통국가’ 신화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존재이다(정혜원, 2009)²⁾.

이 연구는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식과 그들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한국에는 서구에 대한 사대주의와 동남아시아나 흑인에 대한 우월감이 혼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출신을 차별의 시선으로, 백인은 부러움이나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인종주의’ 경향이 남아있다(김선미, 2011; 안정임·전경란·김양은, 2009). 이중적 인종주의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인 결혼이주여성은 차별과 동정적 시선, 부당한 대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중적 인종주의의 배경에는

1)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5년 12월 1,899,519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전체 인구의 3.7%) 중국 955,871명(50.3%), 미국 138,660명(7.3%), 태국 93,348명(4.9%)의 순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2) 유럽에서는 이민 후 동족끼리의 결혼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정혜원, 2009).

미디어 재현의 영향이 크다. 한편, 주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담론과 정책은 미디어 재현과 상호작용하면서 확산되며, 그 결과 공론장에서 묘사되는 이주민은 ‘타자’나 시혜의 대상으로 정형화된다(주재원, 2014). 상징생산과 공론의 장으로부터의 주변화와 ‘타자화’(othering)의 경험은 소속감 상실과 일탈을 초래하며(Silva, 2009) 문화 간 갈등을 야기한다(이창호·정의철, 2010). 미디어는 상징과 담론생산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권력관계를 실천하는 도구이며 미디어 담론은 주류적 관점과 가깝고 타자에 대해서는 ‘정형화’(stereotyping) 하는 경향이 있다(주재원, 2014).

소수자는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표현에 ‘반박할 수 있는’(speaking back) 자원이 부족하며(홍성수, 2015) 자신의 방식으로 주장이나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인 ‘커뮤니케이션 권리’(the right to communicate)도 취약하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소외계층이나 소수자가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에 필수적이다(Duemler, 2000). 소수자가 직면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위축은 미디어 채널과 기술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관련되며 정보와 콘텐츠 이용의 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낳는다.

방송 등 미디어는 소수자인 이주민의 적응을 돕는 정보전달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와 욕구가 표출되고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다(이창호·정의철, 2010). 즉, 이주민은 미디어 채널을 이용해 발언하고 이슈와 정체성을 표현하며 이주민 간은 물론 이주민-내국인 간 소통과 연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정의철, 2015). 반면 이주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의 소수자는 주류 미디어의 담론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된다(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 Roberts, 1978). 이는 다문화 사회 미디어의 이중적 역할을 암시한다.

다문화 연구에서도 ‘타자로서의 거리두기’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표면적 분석에만 치중하는 지배집단 관점의 연구 경향이 강하다(이창호, 2012). 이 연구는 연구 대상과의 접촉이 없는 엘리트적 연구 관행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적 비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조사와 비판적 관점을 결합해 연구를 진행했다. 코르테스(Cortes, 2004)에 따르면 대중 미디어는 다문화 지식, 다문화 신념, 다문화 가치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디어가 다문화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 연구는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통해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과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 사회관계 및 정체성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솔직한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배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엘리트주의적이고 공동체나 맥락보다는 개인과 눈에 보이는

효과중심이지만, 비판적 연구는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이슈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의 도출에 집중한다(Dutta, 2006). 즉, 비판적 연구는 ‘위로부터의’(top-down) 엘리트적 지식구성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 말하는 접근법’(speaking from below)을 통해 억압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분석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둔다(Basu & Dutta, 2007; Dutta, 2006).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와 소수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법적 보호장치를 통해 문화상대성을 인정하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차이의 표현을 장려하지만 차이를 ‘공간화’하며 집단 간 경계를 획정해 배제의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정한업, 2009). 또한 문화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숨기고 시민적 측면보다는 종족적 측면을 중시해 시민사회의 ‘재종족화’에 기여한다(엄한진, 2011). 이 관점은 소수자를 인종 등 배타적 범주로 가두고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하는 역동적 상황을 외면하며(Georgiou, 2005), 문화적 경계를 고정화한다(Sreberny, 2005). 또한 이민자의 적응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이나 인종주의, 배타적 관행, 외국인 혐오주의, 식민주의 등의 문제를 간과한다(Nesbitt-Larking, 2008).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얇은 다문화주의’(thin multiculturalism) 또는 ‘차이 다문화주의’(difference multiculturalism)로도 불리며 관용과 다양성 담론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자 하지만 결국은 이주민의 동화와 순응에 기여한다(Jakubowicz, 2006).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보다는 국가정체성 유지와 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 담론을 활용해 격리를 촉진했으며(Karim, 2008)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인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거리의 공간’을 만들어 불평등을 감추고 다문화를 춤과 음식, 축제로 축소했다(Mahtani, 2008).

반면,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집단의 차이를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적 위치가 교육의 질, 직업, 권위와 영향력, 법적 지위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고 억압, 주변화, 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비중을 둔다(Glasser, Awad, & Kim, 2009).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깊은 다문화주의’(deep multiculturalism)로도 불리며 차이를 관계중심이자 역사, 문

화, 권력,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보면서 차이에 따른 특성에 반응해야 함을 강조한다(하윤수, 2009). 비판적·저항적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갈등이 없는 상태이거나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역사, 문화, 권력, 이데올로기 등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이경희, 2015). 또한, 소수자의 정체성을 배제하는 민족주의나 동화주의를 거부하며 소수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정과 정체성의 정치를 지지하고 주변화된 그룹의 정치화와 함께 지배적 재현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한다(Nesbitt-Larking, 2008). 다양성 자체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배적 문화에 대한 비판과 사회정의의 실천 차원에서 강조하며 이주민 등 다문화 주체의 ‘아래로부터’(bottom-up)의 참여와 목소리 내기를 지지한다.

자본가와 엘리트 언론이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표현의 자유를 독점하는 상황에서(이병남, 2014) 소수자와 소외계층은 주류언론을 통한 표현의 기회는 물론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하다(윤영태·안영민·이진규·안선영, 2007).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억압과 차별에 직면한다. 즉,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집단의식이나 정체성을 공유하며(박경태, 2007) 사회경제적 자원의 이용이나 정치적 발언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다(이주영,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 등 소수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고 이들의 이슈와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소수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 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미혼모, 난치병 환자, 노숙자 등을 포함한다(전영평, 2010).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에 따르면 소수자는 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 기준에 의해 차이를 갖는다. 즉, 다수자가 남성-성인-백인-비장애인-이성애자라는 선분화된 질서에 따라 ‘이다’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고정된 존재인 반면, 소수자는 여성-어린이-유색인종-장애인-성적 소수자라는 ‘신분’에 따라 ‘되기’를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상의 존재이며 상상력과 행동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되기’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주체이다(강진숙·배민영, 2010, 257-258쪽에서 재인용). 소수자는 ‘계급’과는 다른 인종, 젠더, 성적 지향, 출신지 등의 ‘차이’에 따른 구분인 주체성, 즉 정체성에 의해 규정되며 백인-남성-성인-이성애자-본토박이-건강인-지성인-표준어를 쓰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다수자적 인간상과 유색인-여성-어린이-성적 소수자-이주민-환자-무지렁이-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표상되는 소수자적 인간상은 대조적 정체성을 보여준다(윤수종, 2008, p. 229).³⁾

3) 집단의 구성원 수가 아니라 주체의 특질에 주목하며 여성이 소수자에 포함되는 것은 그 수가 적기 때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모든 공중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접근하고 표현의 자유의 혜택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데 (Rodriguez, 2012) 소수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해 중요하다. 소수자는 운동을 통해 차이를 차별화하는 표준적 시선에 대항해 자신의 차이를 표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유한 공간을 만들어가게 된다(윤수중, 2004).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는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약하며 부분적 정체성(성적 소수자, 이주민, 탈북민, 장애인, HIV 감염인 등)으로 전체 정체성을 규정당하며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조선족, 탈북민 등으로 ‘호명’된다(장미경, 2005). 이러한 ‘호명’은 다양성을 가진 집단을 동질적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주체의 지각이나 외부의 호명을 통해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현상이 소수자 문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민, 노인 등은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타자로서 경험하는 억압과 차별의 경험을 통해 저항의식을 갖는 소수자 문화의 주체로 등장하며 자신에 관해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사회의 다수자적 시선과 다수성의 성격을 지닌 제도와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장유정·강진숙, 2015, p. 282). 소수자를 ‘-되기’의 과정을 행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은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를 배려의 대상이 아닌 “창의적 사유와 욕망을 생성하는 주체”(강진숙·배민영, 2010, 258쪽)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소수자는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적인 발언자 되기’를 경험하면서 주체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소수자의 주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다. 또한, 차이의 생성은 소수자 되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배적인 관념과 권력의 질서를 성찰하는 역동성의 원리에 기초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주체성 형성에 기여한다(장유정·강진숙, 2015).

특히, 이주민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발언권과 문화적 표현의 권한이 약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즉, 이주민은 인종, 민족, 젠더, 계층, 직업, 세대, 종교별로 다양하며 중층적 정체성을 갖지만(김선미, 2011; 홍숙영, 2008), 미디어와 사회적 담론에 의해 이들의 다양성은 무시되고 ‘타자’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문이 아니라 표준적도인 ‘남성’과 다른 차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장유정·강진숙, 2015).

2)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 비판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제는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와 소수자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이므로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가 '서로 달라지기'를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윤수종, 2008). 윤수종에 따르면 소수자 교육은 '소수자 되기'이며 소수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면서 모두가 함께 배우고 변해가며 조율하는 과정이다. 한편, 미디어는 소수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고정관념이나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는 '대항적 표현'(counter speech) (홍성수, 2015)을 소통하는 장이며 이 장을 통해 소수자는 그들의 요구와 정체성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다.

주류 미디어는 백인은 지적이고 문화수준이 높은 집단,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제도를 지켜주는 보호의 대상,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이자 불법이라는 이미지로 고정관념화한다(안정임 외, 2009). 또한, '이주민 = 타자'라는 관점에서 이주민을 수혜자나 지원의 대상으로 고정관념화하며 이주노동자는 사고, 범죄, 불법이라는 이미지를, 결혼이주여성은 가부장주의적 관점(저출산, 양육 등)을 중심으로 재현한다(엄한진, 2011). 주류 미디어는 이주여성을 '문제화', '신비화', '탈맥락화'의 틀로,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공식 담론이나 정책에서 배제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묘사하면서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한다(안정임 외, 2009). <러브 인 아시아>에서는 동남아 출신이 한국에 잘 적응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동정적 시각이 주류인 반면, 백인이 많이 출연한 <미녀들의 수다>에서는 한국문화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많았다(안정임 외, 2009). <러브 인 아시아> 등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결혼이주여성을 가부장제도에 편입하여 순종하는 며느리와 아내로 정형화한다는 비판도 받는다(홍숙영, 2013). 뉴스, 드라마, 공익광고는 이주민의 불쌍한 모습을 강조해 동정과 순응의 대상으로 개인화하거나(박신영, 2015) 수동적 존재 또는 위험한 타자로 묘사하며(이경윤, 2012)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서구의 주류 미디어에 내재된 다수자 관점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내용을 재생산하며(Husband, 2005) 이주민을 이국적 또는 위험한 존재로 타자화한다(Sreberny, 2005). 캐나다에서는 인종적 소수자를 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묘사해 고정관념을 확산하며 이들의 주변화에 기여한다(Mahtani, 2008; McMahon, 2009). 독일에서는 이민자에 대해 사회통합과 인도주의 중심의 미디어 담론에서 2004년 3월 마드리드 폭파사건 이후 이들을 테러리즘과 연결하는 담론이 늘어났다(Bauder, 2008a, 2008b). 프랑스에서는 이민자가 늘면서 이들을 위협적으로 보는 담론

이 강화됐고(Benson, 2002) 이주민이 겪는 차별이 상징영역에서의 왜곡과 맞물려 심화되면서 이주민의 반정부 시위와 테러의 동기로도 작용했다. 한국의 경우 어떠한 주류정당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자는 정치적 대표 불능상태에 있다(설동훈,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 등 소수자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다수자의 논리는 소수자에게 ‘-답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욕망을 차단하며 고정된 이미지를 강요하고 확산한다(강진숙·배명영, 2010). 다수자의 담론은 미디어를 매개로 사회전체로 전파되며, 소수자 스스로도 이러한 지배적인 담론에 순응하도록 사회화된다. 이주민을 주체로 보지 않는 자유주의적·보수적 다문화주의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주민은 수동적 이미지로 고정관념화된다. 학교와 미디어와 사회전체에서 이주민을 우리와 다른 사람이자 특별취급 대상으로 낙인찍는 담론과 관행도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거나 이주민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주민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유성용, 2011) 이주민은 이주로 인한 언어적·문화적 차이, 사회관계의 제약으로 인해 정보나 문화에 대한 접근과 활용능력 격차의 문제도 겪는다(류현숙·박선주·홍승희, 2012).

한편, 소수자는 자율적 공동체를 통해 생활정치를 구현해가는 ‘저항적 주체’이며 낙인과 불평등 속에서도 ‘저항의 공간’을 만들고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를 실천하고 다수자-소수자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박경환, 2008). 이 점에서 다양한 미디어 참여를 통한 소수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자기역량 강화의 의미는 크다. 즉, 미디어는 소수자의 생활정치와 정체성정치 구현을 위한 장이며 미디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고 자기표현과 연대의 장을 갖게 된다(Croteau & Hoynes, 2006).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인터넷은 생활정보, 모국에 대한 정보와 한국어 공부를 위한 도구이며 텔레비전은 생활정보와 적응 등 도구적 목적과 즐거움을 위해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채널이다.⁴⁾

3) 다문화와 제주지역의 특성

제주에서 결혼이주여성은 2015년 1월 2,918명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으며 출신국별로는 중국 출신(동포 포함) 998명(34.2%), 베트남 857명(29.4%), 필리핀 397명

4)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이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고 대화로 연결되면서 가족통합과 사회화 기능을 수행했다고 한다(오대영·안진경, 2011).

(13.6%), 일본 161명(5.5%)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결혼이주가 2014~2015년 사이 0.2%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제주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공동체가 촘촘히 연결된 ‘퀵당문화’가 존재한다. 퀵당이란 멀고 가까운 친척을 두루 일컫는 말로 ‘돌보는 무리’라는 뜻인 권당(眷黨)의 제주어 표기이며(고재환, 2002) 퀵당문화는 제주사회의 지역공동체 문화이자 사회적 연결망을 뜻한다. 제주인은 고립된 섬이라는 폐쇄적 환경과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 비옥한 땅을 갖지 못했고 한정된 영역에서 마을 내 결혼이 성행하면서 지역민이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강한 결속감을 다져왔다(한국일, 2007). 그 결과, 제주인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자족적으로 살아왔고 퀵당문화에 덧붙여 학연, 지연과 같은 연결망이 얽히면서 독특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결속 문화인 ‘퀵당문화’에 속하지 않는 타 지역 출신이나 이주민은 더 큰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주민은 의사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 차별적 시선,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제주도와 관련한 다문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민이나 대학생의 인식 연구(강준혁·남진열, 2012; 염미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실태조사(김영순·이미정·최승은, 2014; 유소영, 2009; 장승심, 2012),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유형이나 교사와 학부모의 다문화에 관한 인식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김민호·오성배, 2011; 오고운·김성봉, 2011; 현길자·염미경, 2014; 황석규, 2013).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역민은 단일민족을 선호하며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혈통적-문화적 요건보다 정치적-법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적-법적 요인이 충족된다면 다문화 가정을 같은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강준혁·남진열, 2012). 결혼이주여성과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불만족의 원인으로 의사소통의 문제와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이 많았고 희망취업직종으로는 관광통역과 번역, 교육 중에서는 이민자교육과 한국어교육을 가장 원했다고 한다(유소영, 2009).

다문화와 관련한 제주지역 미디어 연구로는 지역방송의 다문화 뉴스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재승·박경숙, 2013).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주 지역방송은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생활정보, 오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에서 일회성 주제로 이주민을 출연시키고 있었다. 이재승과 박경숙(2013)의 연구는 다문화 관련 방송뉴스에서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다수였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뉴스 소재로 많이 선택됐으며 사건이나 흥미로운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프레임이 많았음을 밝혔다. 이는 다문화에 관한 뉴스가

문화 간 소통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주민이나 다문화에 관한 고정관념과 이질감을 심화시키며 문화 간 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은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그리고 분단이라는 배경 속에 관주도로 형성되면서 통치 이데올로기 강화에 이용되었다(장임숙, 2011). 이는 국가주도의 온정주의와 관용 패러다임에 근거한 다문화 정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주민의 삶으로부터 발현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은 부재했다(심보선, 2007). 한국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은 온정주의와 주류종족 중심의 통합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기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보수적 다문화주의에 근거한다(이경희, 2015). 반면,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의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불평등한 제도와 담론의 개선과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둔다(엄한진, 2011). 또한, 인종주의나 불평등에 맞선 다문화 주체의 권리 찾기와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강조한다(김은미·양옥경·이혜영, 2009; Nesbitt-Larking, 2008).

이 연구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소수자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주체이자 자기를 긍정하며 표준화된 것을 거부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윤수종, 2008), 이주민을 자기인식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주장을 표출하고 소통하며 연대하는 주체로 정의한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과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고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방안을 탐색했다. 연구 문제 1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방송의 다문화 재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문제 2는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그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 그들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 및 이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초점집단면접과 다문화 관련 기관을 방문했을 때의 관찰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 2에 접근했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문제 3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결혼이주여성은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 연구 문제 2: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이들의 사회관계 및 정체성은 어떠한가? 이들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연구 문제 3: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을 연구의 참여자로 보고 이들의 의견을 통해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다(Heide & Falkheimer, 2009). 특히, 면접조사는 연구 대상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솔직한 감정과 인식, 그리고 이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Sanchez-Birkead, Kennedy, Callister, & Miyamoto, 2011). 초점집단면접은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의 생각을 밝혀내고 집단별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강진숙·이은비, 2010) 탐색적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그 자체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차동필, 2008). 면접은 ‘아래로부터’의 연구 방법으로 감정과 생각이 잘 탐색되지 않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맥락을 이해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다(Sanchez-Birkead et al., 2011; 김원, 2011).

이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참가자의 인식이 잘 드러나도록 대화를 유도했다(윤택림, 2013). 소수자는 공동체 조직 같은 믿을 수 있는 조직으로부터 소개될 때 연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참여하는 단체를 통해 면접을 조직했다(Nguyen, Shungu, Niederdeppe, & Barg, 2010; 김원,

표 1.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 참가자 명단

	나이	출신국	직업	체류기간	단체	한국어	교육수준	면접일
A	47	중국	통번역사	13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상	방송통신대재학	4월 1일
B	36	네팔	통번역사	7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중	대졸	4월 1일
C	41	중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13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상	대학원졸	4월 1일
D	31	중국	면접점 근무	7년	글로벌센터	상	대졸	3월 31일
E	46	중국	미용업	21년	글로벌센터	상	전문대졸	3월 31일
F	55	중국	주부	17년	글로벌센터	하	고졸	3월 31일
G	28	베트남	사무직	5년	글로벌센터	중	고졸	3월 10일
H	29	베트남	주부	4년	글로벌센터	중	고졸	3월 10일
I	29	필리핀	주부	5년	글로벌센터	중	대졸	3월 10일
J	26	필리핀	사무직	7년	글로벌센터	중	고졸	3월 10일
K	27	필리핀	사무직	4년	글로벌센터	중	대학원 졸	3월 10일
L	45	중국	글로벌센터 사무처장	10년	글로벌센터	상	대졸	e-메일

2011).⁵⁾ 제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센터를 통해 면접 참가자를 모집했고 2016년 3~4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출신나라와 참여 단체를 고려해 세 개의 집단을 구성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이주여성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중국동포) 5명, 필리핀 3명, 베트남 2명, 네팔 출신 1명이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했다. 다섯 차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센터를 방문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관찰하고 참가 중인 결혼이주여성과 센터 관계자라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센터에 근무하는 중국동포 한 명(L)은 e-메일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세 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만나 보강면접을 실시했고 e-메일로 면접 내용을 확인하고 보강하는 과정도 거쳤다. <표 1>은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명단이다.⁶⁾

4. 연구 결과와 논의

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재현에 대한 인식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프로그램이 실제 그들의 일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보여주며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동정의 대상으로만 묘사한다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언급이다.

5) 다문화기관별로 센터장 등 관계자가 연구에 참가할 결혼이주여성의 선정을 도와주었고, 미리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관련해 설명했으며, 연구자도 연구의 시작과 마무리 때 연구목과 면접결과 활용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면접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취했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6) 제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과 배우자·부부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취업기초 소양교육 및 취업지원 연계사업, 다문화 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활동, 상담사례 관리, 지역홍보,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결혼이주자 통번역서비스,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한다. 이주민의 자조조직인 제주글로벌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주축이 돼 설맞이 다문화 가정·외국인 전통문화체험, 음악밴드와 난타공연단 운영,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메이크업·뷰티, 요리교실, 바리스타 등 창업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라일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시민기자단을 운영했으며 한 차례 <제주사랑 신문>을 발행했다.

〈다문화 고부열전〉 재밌어요. 하지만 방송이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 한부분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J, 필리핀, 26세, 7년)

결혼이주여성은 다 가르치려고 해요. 함께 하는 동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D, 중국, 31세, 7년)

좋은 사람은 안 보이고 못 사는 사람만 나와요. 〈러브 인 아시아〉도 그렇고 실제로 잘 사는 이주민은 안 나옵니다. (B, 네팔, 36세, 7년).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사전 각본에 따라 억지로 불쌍하거나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연출”, “각본”, “편집”, “틀에 박힘” 등의 키워드를 통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옛날에는 〈러브 인 아시아〉를 잘 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I, 필리핀, 29세, 5년)

한국방송이 며느리를 안 좋게 묘사하고 갈등을 강조하고 연출한다는 느낌이에요. (J, 필리핀, 26세, 7년)

〈다문화 고부열전〉이나 〈미녀들의 수다〉, 〈러브 인 아시아〉 등을 초창기에는 호기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고부열전〉은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서 안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 틀에 박힌 느낌과 각본에 따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 중국, 47세, 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팀장인 C 씨는 방송국 작가가 불쌍하거나 갈등이 있는 다문화 가정을 섭외해달라고 센터에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거절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글로벌센터 방문 시 만나 대화하고 이후 e-메일 면접에 응한 중국동포인 글로벌센터의 사무처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얼마 전에도 〈고부열전〉이나 다문화 프로그램 다큐 작가님이 결혼이주자 친정이 가난하고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어렵게 사는 가정을 섭외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잘 사는 분은 제외하라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L, 중국, 45세, 10년, 글로벌센터 사무처장)

결혼이주여성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방송관계자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는 한국인의 흥미와 시청률을 의식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틀에 박힌 프로그램을 위한 협의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팔 출신의 B는 <러브 인 아시아>의 경우 결혼이주성과 시어머니 간의 갈등을 초반에 부각하다가 결혼이주여성의 나라에 갔다 온 뒤에 갈등이 해소된다는 식의 진부한 스토리라인이 현실과는 동떨어진다고 비판했다. C도 고부 간 갈등 → 이주여성 모국으로의 가족여행 → 문제해결의 각본이 실질적인 삶을 반영하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고부열전> 같은 경우 실질적인 삶이 아니죠. 며느리-시어머니의 갈등, 여행, 해결 등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방송을 원합니다. (C, 중국, 41세, 13년)

문화적 차이만이 강조되고 부정적인 가족 내 갈등과 화해라는 정형화된 틀처럼 나오는 방송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나요. (B, 네팔, 36세, 7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이주여성을 ‘짜가지 없다’는 식으로 방송에서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E, 중국, 46세, 21년). 한국인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도 방송에서 이주민을 범죄나 못사는 상황 중심으로 묘사하는 것이 현실과 다르며 실제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뉴스가 부정적 사건을 부각하면 실제 공중의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과 다문화 관련 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평의 필요성이 관찰되었다. 글로벌센터의 사무처장도 다문화 프로그램이 부정적이고 불쌍한 이미지로 다문화 가정을 묘사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아래는 다문화 프로그램 제작자가 제작단계에서 유념해야 할 의견이다.

다문화 프로그램은 어둡고 가난하고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이미지를 부각했다고 생각해요. <러브 인 아시아>도 그렇고 <고부열전>도. 하지만 긍정적인 다문화 가정도 적지 않죠. 한국인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L, 중국, 45세, 10년, 글로벌센터 사무처장)

온정주의는 주류종족 중심의 통합과 제국주의적 태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에 근거한다(이경희, 2015).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주민을 불쌍한 존재 또는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등 온정주의 관점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디어의 재현은 단순한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일상과 그들의 사회관계 및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 아래의 언급은 한국에 오래 살고 한국어를 잘해도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재현이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로 연결되고 이들의 복합적 ‘문화 간 정체성’의 구성에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며느리를 안 좋게 보여줘요. 며느리를 나쁘게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주여성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J, 필리핀, 26세, 7년)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중국사람이 한다고 해요. 제주사람들의 인터넷 엄마 모임인 제주맘카페에 가면 중국사람들 질이 좋지 않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E, 중국, 46세, 21년)

J의 의견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의 안 좋은 점이나 고부간 갈등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출신은 방송이 “중국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고 나쁜 짓을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고 공통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E는 “제주맘카페”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중국인이나 중국동포인 조선족에 대한 비방이 많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인과 중국동포에게 직접적 차별의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와 E는 한국말을 잘 하고 한국에 오래 산 중국동포임에도 위의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미디어와 일상에서의 ‘타자화’의 경험과 ‘배제’의 감정이 중첩되면서 이들이 그들만의 문화 간 정체성을 협상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 집단을 동정적 또는 흥미중심으로 고정관념화하면 문화 간 소통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자를 인종 등의 배타적 범주에 가두고 소수자와 다수자가 함께하는 역동성을 외면하며 (Georgiou, 2005) 문화적 경계를 고정화하는 경향이 있다(Sreberny, 2005). 즉,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근거해 다문화를 음식, 축제, 이국적인 삶으로 제한하고(Mahtani, 2008), 이주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고정관념화하는 경향(엄한진, 2011)이 다문화 방송에 만연해 있고 그 결과 불평등이나 다수자의 변화의 필요성은 재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급급해 흥미와 감동 위주의 진부한 스토리라인을 보여주며 이주민의 이슈나 문화를 이주민의 관점에서 반영하는 노력이

적다고 지적했다(이창호·정의철, 2010; 정의철, 2013). 종합하면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한 이주민의 삶과, 문화, 그리고 이슈를 제대로 알리고 문화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은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다음 언급처럼 <런닝맨> 같은 오락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프로그램, 드라마나 스포츠가 재미있다는 응답도 있었고 지역방송의 뉴스를 자주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문화 욕구를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저는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하게 많이 봐요. (D, 중국, 31세, 7년)

실제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를 좋아해요. (E, 중국, 46세, 21년)

저는 텔레비전을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F, 중국, 55세, 17년)

<런닝맨> 같은 예능을 좋아해요. 스트레스 푸는 데 제일 좋아요. (I, 필리핀, 29세, 5년).

8시 뉴스를 보는데 제주지역 뉴스를 많이 봐요. 밤 8시 30분에 하죠. 제주MBC 뉴스를 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제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G, 베트남, 28세, 5년)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방송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았다. 한국방송이 재미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드라마가 막장, 불륜 등의 내용이 많아 충격적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드라마 등의 일부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이나 경험에 비추어서는 비윤리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불륜, 막장 등 레퍼토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 드라마는 소재는 다양한데 배우들이 연기를 못 하구요. (D, 중국, 31세, 7년)

다 보거나면 너무 막장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에 너무 소재가 안 좋은 것이 많아요. (E, 중국, 46세, 21년)

결혼이주여성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와 오락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고 라디오나 신문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인터넷과 페이스북은 주로 취업이나 생활정보를 찾는 목적과 출신국의 문화와 뉴스에 접하기 위해 활용했다. 정보와 오락, 언어와 문화학습의 동기를 가지고 하루 2~3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언급과 텔레비전을 항상 틀어놓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를 보면 텔레비전이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접근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자주 이용하는데 주로 정보와 오락을 위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은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와 오락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고 교육적 목적이나 여가를 위해서 또는 습관적으로도 미디어를 이용했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G(베트남, 28세, 5년), I(필리핀, 29세, 5년), B(네팔, 36세, 7년)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주여성 모임과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네팔출신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에서는 글로벌센터와 같은 자조단체나 자발적 출신국 모임이 허브역할을 했다. 특히, 물리적 공간을 가진 단체의 사무실을 이용해 만남을 이어가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끼리 교류하는 장을 가졌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언급이다.

난타하고 봉사같이 나가고 가끔 베트남 식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며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좋은 점은 같은 자국 사람도 친구도 만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만나서 매우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해 난타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사회기관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식사 도움, 발마사지, 안마, 공연 등 사회기관의 요청만 오면 무조건으로 봉사 활동하러 갑니다. (G, 베트남, 28세, 5년)

센터에서 연주모임 밴드 있어요. 난타도 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공부도 해요. 봉사 나눔 모임도 있어요. (I, 필리핀, 29세, 5년)

이러한 언급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은 불쌍하거나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회활동,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주 초기의 고립감과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이주민끼리 교류하고 연대를 형성하며 또 선주민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이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동정적, 시혜적인 묘사가 결혼이주여성의 실제 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남을 암시한

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의 정보와 문화도 쉽게 접하고 이주민끼리의 자조모임에도 적극 나서고 있었다. 필리핀 출신 H는 인터넷을 통해 취업정보를 찾고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신문 사이트를 방문하고 영화도 본다고 했고, 베트남 출신 G와 I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한국문화를 검색했고 한국어도 공부했으며 한류의 확산으로 본국에서도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이 출신국의 문화와 정보를 수시로 접한다는 대답이다.

베트남 방송이 더 재미있어요. 페이스북, 신문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방송이나 영화를 봐요. (G, 베트남, 28세, 5년)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핀 현지 뉴스를 봐요. (I, 필리핀, 29세, 5년)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영화나 뉴스를 봐요. (H, 29세, 베트남, 4년)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네팔 웹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고국과의 문화·정보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간’(intercultural)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종합하면 동화주의적이거나 동정적 관점의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나의 정체성은 붕 떠 있어요.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A, 중국, 47세, 13년)

2012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어요. 당연히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중국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L, 중국, 45세, 10년, 글로벌센터 사무처장)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필리핀과 한국사람이라는 생각이 반반이에요. 고향의 전통음식을 먹고 싶을 때나 바삭바삭한 음식이 생각날 때는 필리핀 사람이란 것을 느껴요. 하지만 내가 해야 일들을 ‘빨리빨리’ 하려거나 두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해요. (I, 필리핀, 29세, 5년)

한국국적을 취득한데다 일상생활을 할 때 저는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베트남 친구를 만나거나 고향의 가족이 그리울 때는 베트남 사람이란 걸 새삼 느껴요.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교육을 시켜야 될 때는 당연히 한국엄마보다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해요. (G, 베트남, 28세, 5년)

결혼이주여성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때나 같은 나라 출신을 만날 때 또는 타자로 보는 주변의 시선을 느낄 때 출신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가 학교를 가면 한국의 학부모와 만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이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두 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 출신의 I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곧 입학하는데 피부색 때문에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으며 베트남 출신의 G도 학교에 보낼 때 한국엄마보다 부족한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중국 동포인 L은 주변의 한국사람이 동족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이주를 경험한 당사자로서의 ‘이중적 소속감’과 일상과 미디어에서의 ‘타자화’ 경험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동포는 언어 문제가 거의 없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우리”(중국동포)와 “그들”(한국인)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점집단면접과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국동포”(조선족)를 의미했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한국인과는 다른 “조선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중국동포조차도 귀화 여부를 떠나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들만의 문화 간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은 일상에서 겪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식당에서 100만 원 제의했다가 연변 억양을 듣고 다음날 90만 원을 제안해 일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분 나빠서 그 일을 안 했어요. (A, 중국, 47세, 13년)

시골로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 도망갈지 보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서도 외국인범죄를 강조해요. 통계도 제시가 없어요. (C, 중국, 41세, 13년)

말로는 차별을 안 한다고 하지만 느낌상 차별을 당해봤어요. 눈치를 주거나 임신했을 때,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상담사 교육을 받았을 때 저는 혼자 외국인이었어요. 제가 요청을 해도 응해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여기 현지인이 저를 단지 돈 때문에 한국에 시집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H, 베트남, 29세, 4년)

중국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사람은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해서 저 자신의 국적을 숨겼어요. (D, 중국, 31세, 7년)

중국동포는 조선족 학교에서 교육 받은 경우가 많아 언어적 불편함은 거의 못 느끼지만 성장한 지역에 따라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면접에 참여한 한 여성은 한국에 오래 거주한 동포였지만 한국말이 서툴렀다. 위에 D의 경험처럼 중국동포의 경우 중국국적을 숨기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한국의 미디어와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원인으로 보인다. D와 E는 중국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네팔출신인 F는 피부색에 따라 반말을 하는 경우를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겉으로는 한국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구직이나 직장생활,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등 실질적 삶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 배경에는 미디어의 왜곡된 재현이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정을 구성해 오래 생활했고 귀화한 경우도 있으나 그들의 출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민이 그들의 정보·문화 욕구와 일상의 필요에 따라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윤수중, 2008) 고유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협상하게 됨을 보여준다. 결국, 표면적 차이나 이국적 측면을 부각해 ‘이주민 = 타자’임을 강조하거나 한국인으로 동일시하는 미디어의 재현은 그들이 일상 속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방안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동정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낙인과 불평등 속에서도 미디어 이용과 사회활동을 통해 차이의 정치와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강진숙·배민영, 2010; 윤수중, 2008; 장유정·강진숙, 2015), 결혼이주여성은 그들만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활동을 통해 다수자적 시선과 사회관계, 제도에 맞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출하고 소수자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방안을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와 다문화 기관에 대한 방문과 관찰을 통해 탐색했다. 초점집단면접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이주민이 살아온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크쇼, 역사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등을 선호했다. 이는 현재 방송되는 시집살이의 고생과 갈등, 감동과 눈물, 오락 위주의 전형적인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과는 다른 내용을 결혼이주여성이 원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아래 의견과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매일 못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주민으로 살아온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각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면 해요. (B, 네팔, 36세, 7년)

다수자인 선주민의 흥미만이 아니라 이주민의 정보·문화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은 물론 프로그램 제작 참여기회에 대해 이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참여를 이끄는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그들의 일상이 미디어 재현을 통해 좀더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원했고, 온정주의적 시각과 고정관념화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는 향후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와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인의 고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타났다(A, 중국, 47세, 1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하는 직원과 방문상담사의 다수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중국동포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글로벌센터의 센터장도 이주민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다문화 정책이 행사위주로 반복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방송이나 정책에서 ‘다문화’라는 호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문화’로 호명하고 구분하는 것은 이들을 한국사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무슨 특혜를 받는다는 부정적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호명’은 다양성을 가진 집단을 동질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소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 다음 의견은 미디어는 물론 다문화 정책과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이주민과 그 자녀를 우리의 일부로 간주하는 ‘호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다문화로 부르면 차별이라고 생각하며 다문화를 강조 안 하면 좋겠어요. (A, 중국, 47세, 13년)

방송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만 편집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런 미디어가 없어요. (E, 중국, 46세, 21년)

A의 의견은 이주민이나 그 자녀의 정체성을 고정관념화하지 않고 다수자와 소수자를 분리하지 않는 ‘호명’을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흥미와 시청률을 위해 각본에 따라 제작되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한 다양성의 전시, 다문화는 축제, 음식, 춤이라는 식의 묘사(Mahtani, 2008), 그리고 눈물과 감동 중심의 진부한 콘텐츠의 재생산은 다양성을 희화화하고, 문화 간 분리를 고착화할 수 있다. 이주민이 가진 차이를 사회의 자연스러운 한부분으로 묘사하고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더 많이 등장할 때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강화될 수 있다.

E의 언급은 상업화된 주류 미디어가 시청률을 의식해 다수자의 흥미 위주로 다문화를 재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사점이 크다. 아울러 다수자가 제작과 운영에서 중심이 되고 다수자의 시청률을 의식하는 미디어가 아닌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소수자 미디어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이주민이 제작과 운영을 주도하는 소수자 미디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이 방송제작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문화나 요구를 적극 표출한다면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소수자 미디어를 포함한 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자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소수자 간, 소수자와 다수자 간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소수자를 관리하거나 지도하겠다는 '위로부터' 관점에서 탈피해 이주민과 같은 소수자의 생생한 일상과 이슈를 이해함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다문화에 관한 미디어 담론이 구성될 때 문화 간 소통과 공존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과 제언

미디어의 재현은 이미지나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의 삶과 사회 관계, 정체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다문화 사회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연구는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엘리트적 지식구성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 말하는 기법'을 통해(Basu & Dutta, 2007; Dutta, 2006) 연구를 진행했다. 결혼이주여성 스스로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고 이들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에 대해서도 경험과 인식을 표현하도록 했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축제나 행사를 통해 다양성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제도와 담론의 개선을 통한 공존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주체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권리 찾기에 초점을 둔다(김은미 외, 2009; 엄한진, 2011). 이 점에서 이주민의 삶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이들의 이슈와 문화가 표현되고 소통되는 미디어의

중요성은 크다. 특히, 제주는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제주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말이 서툰 상태에서 지역에 고착화된 제주방언을 배워야 하는 이중고에다가 섬이라는 특성상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고립을 겪을 수 있다. 제주는 오랜 세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이주민의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름'이 차별의 요인이 아닌 새로운 어울림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주체적인 삶을 누리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를 통해 이주민의 일상과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 간 소통과 공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주민의 시선에서 탐색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불쌍하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며 자조모임과 자원봉사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회문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디어 채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사회관계와 정체성을 구성했다. 반면, 주류방송에서 내보내는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주민에 대해 온정주의적인 시선과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은 틀에 박힌 미디어의 재현과 고정관념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제주의 사회적 연결망인 '퀵당문화'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끼리의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다. 즉, 강력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결혼이주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하위문화가 어울리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전영평, 2008)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준다.

연구 문제 1은 결혼이주여성이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이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파한다고 비판했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시어머니 간의 갈등과 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이야기했고 뉴스가 이주민의 범죄나 일탈을 과장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프로그램 제작자가 고정관념과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각본을 가지고 억지로 불쌍하거나 무능력한 결혼이주여성을 삽입하고 가족 간 갈등과 해결의 과정을 연출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미디어 재현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물론 차별의 형태로 이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현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민을 보호의 대상이거나 무능력하거나 범죄와 연결된다는 식으로 묘사함으로써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되며 이는 이주민의 취업과 직장 및 가정생활,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하면 이주민의 경험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집단을 공정하게 재현해야 한다.

연구 문제 2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및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에게 텔레비전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이 정보와 문화, 소통의 채널 역할을 했다. 이들은 한국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뉴스, 스포츠를 즐겨보았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출신국의 영화나 뉴스도 자주 시청했다. 한국보다 출신국의 뉴스에 더 관심이 간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출신국이나 이주여성의 모임을 편안하게 생각하며 참여했고 네팔출신의 경우 작년 네팔 지진 때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국적을 갖고 있고 언어적 불편함이 없는 경우도 그들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간직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 간 정체성’을 구성하고 끊임 없이 협상하고 있었다. 체류기간, 한국어 실력이나 국적, 한국동포 여부보다는 한국에 살면서 겪은 차별적 시선과 타자화 경험으로 인해 “붕 뜯 정체성”(A, 중국, 47세, 13년)이나 출신국을 우선시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문제 3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소수자는 차별적 표현에 ‘반박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홍성수, 2015),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취약한 위치에 있다. 초점집단면접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이주민이 살아온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크쇼, 역사나 한국어 프로그램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와 정체성, 그들의 정보 및 문화 욕구를 반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일반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이창호·정의철, 2010). ‘조선족’을 강조하는 범죄보도는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일상의 차별적 태도를 조장하는 반면, ‘중국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혐오표현 등의 부정적 댓글이 적었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해(한희정·신정아, 2016) 미디어에서 문화집단을 지칭하는 ‘호명’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주민을 ‘다문화’로 통칭하는 ‘호명’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결혼이주여성 등이

주민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호명이 필요하다. 이주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제작기술을 습득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장인 미디어 교육이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이주민은 저널리즘과 영상제작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그들이 가진 ‘차이’와 ‘소수성’을 소통할 수 있다(이은비·강진숙, 2013). 미디어 교육이 소수자만을 대상화하지 않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배우고 어울리면서 서로 변해가는 과정이 된다면(윤수중, 2008)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물론 역량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이주민이 지역방송에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는 것도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외래어나 속어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응답(A), 제주의 사투리가 어렵다는 응답(C)도 있었다. 중국동포와 결혼한 글로벌센터장에 따르면 제주의 방언이 심해 한국어를 배워도 시부모나 이웃 어르신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지역방송에서 제주에 특화된 맞춤형 언어교육과 문화와 소통 프로그램의 편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미디어가 온정주의적 다문화 담론에 맞서면서 동시에 다양한 이슈와 문화, 담론이 소통되는 장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제주에 국제이주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문화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조명했다. ‘아래로부터’의 연구 방법을 통해 이주민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관찰도 병행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탐색했다. 그러나 제주 이외의 지역이나 이주노동자 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포함해 좀더 넓은 범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복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크겠다. 또한 초점집단면접과 더불어 현장관찰을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이 관찰 결과를 다각도로 해석해 두터운 분석과 비판적 해석을 결합하는 것도 후속연구의 과제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라는 공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 내기’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소수자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과 사회관계, 정체성은 물론 이 요인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미디어의 이주민 재현의 개선과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준혁·남진열 (201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1집, 85-104.
- 강진숙·배민영 (2010). '소수자-되기'를 위한 노인 미디어교육: 노인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인하교육연구>, 16권 1호, 255-280.
- 강진숙·이은비 (2010). '차이의 정체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연구: MWTV 미디어 교육 참여 이주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교육연구>, 16권 3호, 139-162.
- 고재환 (2002). <제주속담사전>. 서울: 민속원.
- 김민호·오성배 (2011).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9호, 7-47.
- 김선미 (2011).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50권 4호, 171-188.
- 김영순·이미정·최승은 (2014).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4호, 239-271.
- 김 원 (2011). 한국 이주민 지원단체는 '다문화주의적'인가: 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김원 외 (편), <한국의 다문화주의: 가족, 교육 그리고 정책> (51-81쪽). 서울: 이매진.
- 김은미·양옥경·이혜영 (2009). <다문화 사회, 한국>. 파주: 나남.
- 김현미 (2010). '사랑'의 이주?: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주 과정. 김영옥 (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 (11-43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류현숙·박선주·홍승희 (2012). ICT를 활용한 다문화 복지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4권 2호, 135-165.
- 박경태 (200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서울: 책세상.
- 박경환 (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권 4호, 297-310.
- 박신영 (2015). 다문화관련 TV프로그램 시청과 다문화 인식, 태도 및 제3자 효과: <러브 인 아시아>와 <다문화휴먼다큐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권 6호, 79-119.
-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림>, 34호, 53-77.
-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 201>, 10권 2호, 41-76.
- 안정임·전경란·김양은 (2009). <다문화와 미디어교육: 다문화 미디어 교육 교사용 참고 교재>. 서울: 한국전파진흥원.
- 엄한진 (2011). <다문화 사회론: 이민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성찰적 입문서>. 서울: 소화.
- 엄미경 (2012).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권 1호, 211-233.
- 오고운·김성봉 (2011).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탐라문화>, 39호, 87-117.
- 오대영·안진경 (2011). <다문화 가정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유성용 (2011). 도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안정성과 다문화 정책. 김원 외 (편), <한국의 다문화주의: 가족, 교육 그리고 정책> (111-153쪽). 서울: 이매진.
- 유소영 (2009). 제주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적응 실태와 사회통합 방향. <교육과학연구>, 11권 2호, 213-239.
- 윤수중 (2004). 소수자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진보평론>, 20호, 179-219.
- 윤수중 (2008). 소수자와 교육. <진보평론>, 38호, 227-242.
- 윤영태 · 안영민 · 이진규 · 안선영 (2007). <지역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례연구>.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홍천: 아르케.
- 이경운 (2012). <다문화시대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한국>.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경희 (2015).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에 한 이해와 실천: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극복, '보편적-창조적 소수자' 되기. <윤리교육연구>, 38집, 253-279.
- 이병남 (2014). <미디어 시민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은비 · 강진숙 (2013).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MWTV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441-468.
- 이재승 · 박경숙 (2013). 지역 텔레비전의 다문화 관련 뉴스 프레임 분석: KBS제주, 제주MBC, JIBS, KCTV JEJU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1호, 326-358.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권 3호, 195-227.
- 이창호 (2012).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일고찰: 인천 차이나타운 거주 화교(華僑)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5권 1호, 5-32.
- 이창호 · 정의철 (2010). 다문화사회 대중매체의 사회통합적 역할 탐구: 다문화정책 담당자 및 다문화방송 제작자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370-414.
-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의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집 6호, 159-182.
- 장승심 (2012).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41호, 139-177.
- 장유정 · 강진숙 (2015).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한 '여성-되기' 사례 연구: 노인 미디어 학습동아리 <은빛둥지>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0호, 277-305.
- 장임숙 (2011).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권 1호, 145-166.
- 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권 3호, 9-27.
- 전영평 (2010).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의철 (2013). 다문화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사례 연구와 제언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5-37.
- 정의철 (2015).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역량강화: 이주민 미디어와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57-286.
- 정진주 (2010). "아파도 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이주 여성 노동자의 일과 건강. 김영옥 (편), <국

- 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든다> (79-1193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정한업 (2009).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32호, 105-121.
- 정혜원 (2009). <다문화 가정의 건강실태>. 서울: 박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2015).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 URL: <http://www.jeju.go.kr/files/convert/143683534600451.hwp.htm>
- 주재원 (2014). 다문화 담론 이면의 타자와 미디어 윤리: 타자에 대한 윤리철학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4호, 443-475.
- 차동필 (2008). 고혈압·당뇨병 관리 PR 캠페인 전략 개발 사례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0권 1호, 140-16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201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특성 분석>. 과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8월.
- 하운수 (2009). 미국 다문화교육의 동향과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48권 3호, 117-132.
- 한국일 (2007). 제주 켄당문화와 제주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30집, 375-413.
- 한희정·신정아 (2016, 4월). <미디어담론에 나타난 조선족 정체성의 변화와 의미>. 한국방송 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전주: 전북대학교.
- 현길자·염미경 (2014).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3권 2호, 304-320.
-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호, 287-336.
- 홍숙영 (2008). 지역방송의 지역성 및 다문화주의 반영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6권 3호, 149-158.
- 홍숙영 (2013). 다문화 TV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러브인 아시아' 프로그램 시청을 중심으로 한 통제집단 사후설계실험. <디지털정책연구>, 11권 7호, 19-26.
- 황석규 (201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권 4호, 87-101.
- Basu, A., & Dutta, M. J. (2007). Centralizing context and culture in the co-construction of health: Localizing and vocalizing health meanings in rural India. *Health Communication*, 21(2), 187-196.
- Bauder, H. (2008a). Immigration debate in Canada: How newspapers reported, 1996-2004.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9(3), 289-310.
- Bauder, H. (2008b). Media discourse and the new German immigration law.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1), 95-112.
- Benson, R. (2002). The political/literary model of French journalism: Change and continuity in immigration news coverage, 1973-1991. *Journal of European Area Studies*, 10(1), 49-72.
- Cortes, C. E. (2004). Knowledge construction and popular culture: The media as multicultural educator. In J. A. Banks & C. A. M. Bank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pp. 169-18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roteau, D., & Hoynes, W. (2006). *The business of media*.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Duemler, D. (2000). The right to be heard: Creating a social movement for the 21st century. *Social Policy*, 31(2), 45-51.
- Dutta, M. J. (2006). Theoretical approaches to entertainment education campaigns: A subaltern critique. *Health Communication*, 20(3), 221-231.
- Georgiou, M. (2005). Diasporic media across Europe: Multicultural societies and the universalism-particularism continuu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81-498.
- Glasser, T. L., Awad, I., & Kim, J. W. (2009). The claims of multiculturalism and journalism's promise of diversity.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57-78.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 (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UK: Macmillan Press.
- Heide, M., & Falkheimer, J. (2009). Crisis communication in a new world. *Nordicom Review*, 30(1), 55-65.
- Husband, C. (2005). Minority ethnic media as communities of practice: Professionalism and identity politics in interac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61-479.
- Jakubowicz, A. (2006). Anglo-multiculturalism: Contradictions in the politics of cultural diversity as risk.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Politics*, 2, 249-266.
- Karim, K. H. (2008). Press, public sphere, and pluralism: Multiculturalism debates in Canadian English-language newspapers. *Canadian Ethnic Studies*, 40(1-2), 57-78.
- Mahtani, M. (2008). Racializing the audience: Immigrant perceptions of mainstream Canadian English-language TV new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4), 639-660.
- McMahon, R. (2009). Intercultural journalism and Canadian media reform. *Media Development*, 56(1), 3-7.
- Nesbitt-Larking, P. (2008). Dissolving the diaspora: Dialogical practice in the development of deep multiculturalism.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8(4), 351-362.
- Nguyen, G. T., Shungu, N. P., Niederdeppe, J., & Barg, F. K. (2010).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 and scanning behavior of older Vietnamese immigra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5(7), 754-768.
- Rodriguez, G. G. (2012). New scenarios for the right to communicate in Latin America. In D. Frau-Meigs (Ed.), *From NWICO to WSIS 30 years of communication geopolitics: Actors and flows, structures and divides* (pp. 69-79). Intellect, Bristol, UK: Intellect.
- Sanchez-Birkhead, A. C., Kennedy, H. P., Callister, L. C., & Miyamoto, T. P. (2011). Navigating a new health culture: Experiences of immigrant Hispanic women. *Journal of Immigrant Minority Health*, 13(6), 1168-1174.
- Silva, P. D. (2009). Television, public sphere, and minorities. *Media Development*, 56(4), 51-55.
- Sreberny, A. (2005). 'Not Only, But Also': Mixedness and med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3), 443-459.

최초 투고일 2016년 6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7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6년 7월 22일

Representation of Multicultural Issues and Immigrants' Media Use, Social Relations and Identity: Focusing o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Voice in Jeju

Euichul Jung

Associate professor, Sangji University

Yongbok Jung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foreigners in Jeju province is 19,903 in January, 2015, and the growth rate is the highest in the natio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s been increasing as a combining result of Jeju's being international free city in 2002 and the transformation of becoming an open society from a closed space as an Island.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issues has focused on surface phenomena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of immigrants as a result of keeping distance from 'Other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is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as opposed to elite centered research practice or just theoretical critique. Based on focused group interviews, this research paid attention to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perception and their media use, social relations and identity, and interpreted their stories from their perspectives.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strong information needs for job search, daily life information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criticized that multicultural programs were produced according to scripts following Koreans' interest and spreaded stereotypes that immigrants were poor and helpless. They satisfied their information and cultural needs through television, the Internet and smart phone, built their social relations and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including volunteer work. Also, they accessed their native countries' culture, such as movies, as well as news through media activities on a regular basis, and were constructing and negotiating their intercultural identity based on their experience of being 'Others' in Korea. To strengthe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communication right, research findings suggested that immigrants should participate in local media's program production as divers roles after they developed their media capacity through media education. In addition, research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the naming of 'multicultural' was not appropriate and should be changed to support immigrant's unique identity and cultural power; they also suggested tailored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communication program considering Jeju's dialect as well as local and cultural distinctions.

Keywords: multicultural representation, communication right, minority, cultural identity